등록 (*본교회 교인자 너 (9월 첫 구가지 각부서통해 *외부 (9/11(로나) 오건 10(00선착순 40명

제8기제자훈련

일 시: 9월13일(목)부터 14주간

마 감: 9월2일(주)

문 의: 윤원상 전도사, 홍승룡 장로



대 상: Pre K-12학년

개 강: 9/15(토) 오전 9:30

등 록: 8/18~8/19 오전 10:00-오후 2:00 (한국학교 사무실) * 가을 학기에는 모든 학생이 등록해야 합니다.

문 의: 함미희 전도사, 김홍덕 권사 (718-886-4646)

전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제57기 전도폭발 훈련

한층 쉬워진 'Just EE'로 개편된 복음 제시 훈련

개 강: **9월18일(화)** 등록 마감: **9월9일(주)** 오리엔테이션: **9월16일(주)** 문 의: 오인수 목사, 최원일 장로 2018년 표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교회

퀸스장로교회

9월 교육의 달

아카페

제414호

2018년 9월호

때 0알

퀀즈장로교회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

KAPCQ CHRISTIAN MAGAZINE

4aane

ト가 引 / 爱加倍·Агапэ

교육의 달 특집 1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 | 차평화 전도사

교육의 달 특집 2

추천 영화 | I Can Only Imagine

추천 도서 | The Radacal Book for Kids

Growing Up Christian: Have You Taken
Ownership of Your Relationship with God?

Mission trip | Arizona Kazakhstan Cambodia Philadelphia Harlem

2018 청년연합 여름 수련회 - 레디컬

중국교포부 연합 구역예배 기도와 수고, 사랑으로 이룬 부흥

The 3rd Summer Music Camp
"I Give My Heart to The Lord"



2018.9

www.kapcq.org



의인의 비전

우리 교회는 네 개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의 비전, 복음의 비전, 의인의 비전, 예배의 비전입니다.
그 중에 의인의 비전은 다음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의인의 비전은 시편 1편에 기초하여 세워진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시편 1편이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의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율법(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시냇가(성령)에 심겨 있어야 합니다. 모임의 사람입니다. 모임(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가르치며, 기도해야 합니다. 9월, 새 학년 새 학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머무는 곳곳에 의인의 삶이 있는 비전을 잊지 맙시다.

담임목사 김성국 Rev. Seoung Kook Kim 金星局牧师



VISION OF THE RIGHTEOUS

Our church has four visions, which are: Vision of Discipleship, Vision of the Gospel, Vision of the Righteous, and Vision of Worship.

Among them, the vision of the righteous is made based on Psalm 1.

A person whom God wants is the righteous. Who is the person whom Psalm 1 states as the righteous?

It is a man of Scripture. One must meditate on the law of the Lord (the Scriptures) day and night. It is a man of the Holy Spirit. One must be planted by streams of water (The Holy Spirit).

It is a man of community. One must stay within the spiritual community.

We all must guide, teach, and pray, so that the next generation may live a life of righteousness with whom God is pleased with.

September is the season where the new semester begins.

May our children, wherever they are, live a life with the vision of the righteousness.

义人的异象

我们教会有四个异象。

那就是门徒的异象,福音的异象,义人的异象和崇拜的异象。 其中义人的异象是为了下一代而存在的。 义人的异象是在诗篇第一篇的基础上被建立起来的异象。 为神而活的人就被称作为义人。 诗篇第一篇里所讲的义人到底是怎样的人呢?

喜爱神的话语,昼夜思想耶和华的律法(话语)的人,被圣灵充满,栽在溪水旁(圣灵)的人, 团契相交,聚会在(共同体)当中的人。

我们要引导下一代成为神所喜悦的义人, 教导他们,为他们祷告。 9月是新学年新学期的开始, 不要忘记我们子女所到之处的每一个地方,要活出义人的异象。

ВИДЕНЬЕ ПРАВЕДНИКА

НАША ЦЕРКОВЬ ИМЕЕТ ЧЕТЫРЕ ВИДЕНЬЯ
ЭТО УЧЕНИЧЕСТВО, ЕВАНГЕЛИЗАЦИЯ,
ПРАВЕДНОСТЬ, БОГОСЛУЖЕНИЕ
СРЕДИ ЭТИФ ВИДЕНИЙ, ВИДЕНЬЕ ПРАВЕДНОСТИ ВИДЕНЬЕ ДЛЯ НОВОГО ПОКОЛЕНИЯ
ВИДЕНЬЕ ПРАВЕДНОСТИ ОСНОВЫВАЕТСЯ НА
ПЕРВОМ ПСАЛМЕ.
БОГУ НУЖНЫ ПРАВЕДНИКИ
КАКИМ ПОКАЗЫВАЕТ НАМ ПСАЛОМ ПЕРВЫЙ,
ПРАВЕДНИКА?

ЧЕЛОВЕК СЛОВА БОЖЬЕГО. РАЗМЫШЛЯЕТ НАД ЗАКОНОМ (СЛОВОМ БОЖЬИМ) ДЕНЬ И НОЧЬ. ЧЕЛОВЕК ДУА БОЖЬЕГО. ПОСАЖЕННЫЙ У ПОТОКОВ ВОД(ДУФ СВЯТОЙ). ЧЕЛОВЕК СОБРАНИЯ. ПРЕБЫВАЮЩИЙ В СОБРАНИИ(ОБЩИНЕ)

МЫ ДОЛЖНЫ МОЛИТЬСЯ, УЧИТЬ, ВЕСТИ НАШЕ НОВОЕ ПОКОЛЕНИЕ, ЧТОБЫ ОНИ ЖИЛИ ЖИЗНЬЮ ПРАВЕДНИКОВ, ЖИЗНЬЮ УГОЖДАЮЩЕЙ БОГУ. СЕНТЯБРЬ. НОВЫЙ УЧЕБНЫЙ ГОД. ТАМ ГДЕ НАФОДЯТСЯ НАШИ ДЕТИ, ПУСТЬ ОНИ НЕ ЗАБЫВАЮТ О ВИДЕНЬИ ПРАВЕДНИКА.

교육의 달 추천도서

아가

제414호 2018.9

건축 바자

날자: 10월 13일 (토) 시간: 오전 8시30분-7시 장소: 주차장, 지하친교실

QBC 강의

매주일 오후 2시15분-3시15분 제 8기 제자훈련 개강: 9/13(목) 문의: 윤원상전도사, 홍승룡장로

제 57기 전도폭발 훈련

복음 제시 훈련 개강: 9/18(화) 문의: 오인수 목사, 최원일 장로

한층 쉬워진 'Just EE'로 개편된

영/유아/유치부 부모 대상 새가족 성경공부

9/23(주)부터 5주 장소: 지하 B06호 시간: 오후 1시20분-2시10분 문의: 이명옥전도사, 박정봉 집사

퀸즈성인대학 가을학기

개강: 9/18(화) 오전 10시30분 문의: 이양미 전도사

- 2 신앙시론 | 의인의 비젼
- 5 교육의 달 추천도서 | The Redical Book For Kids, Growing Up Christian
- 6 송이꿀 같은 말씀 |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 8 2018년 8월 | 담임목사 설교요약
- 9 교육부 교역자 캠프 | 차세대 비젼을 성취하기 위해
- 10 교육의 달 특집 |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
- 14 2018 단기선교 캄보디아 | 하나님의 약속 리코더소리로 듣는 하나님의 음성
- 17 아리조나 |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 18 카자흐스탄 | 광야적 투박함과 간절함이 성령 안에서 뉴욕과 만나다
- 20 필라델피아 | HEALED BY MUSIC, TOUCHED BY GOD
- 23 할렘 | 복음과 사랑의 음식 나누기
- 24 청년연합 여름 수련회 | 레디컬
- 26 교육부 | 유년부 주님과 함께 간 소풍
- 27 퀸장 친목 낚시대회 | 오늘은 제가 어부 베드로입니다
- 28 교육부 | The 3rd Summer Music Camp
- 30 교육의 달 추천영화 | I CAN ONLY IMAGINE
- 31 영화 감상문 | WHAT WE CAN'T DO, GOD CAN
- 32 중국어 예배 | 教育部的第一次野外活动 교육부 첫 야외모임 教育部里的喜乐 -유얼부에서 얻은 기쁨
- 33 중국 교포부 연합구역예배 기도와 수고, 사랑으로 이룬 부흥
- 34 십자말 성경퀴즈
- 35 2018 년 7월 새가족 안내

- 김성국 목사
 - 차평화 전도사

편집부

편집부

이명옥 전도사

차평화 전도사

남형욱 장로

서다인 청년

조제인 집사

JAMES LEE 선교사

최워일 장로

MS, LESLIE MARTINEZ

문인숙 권사

김미연 청년 고은비 청년 심건우 청년

이송은 집사

조성순 집사

이세현 집사 최효진 권사

민유나, Daniel Anbinder, Joshua Shin,

Angellina Yoo, Katelyn Choi

편집부

Emily Sohn

JIANG YI

EMILY

이애령 집사

김기호 장로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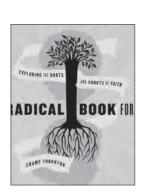
하게하는 건축 바다 2018.10.13 SATURDAY 8:30 AM - 7:00 PM 비빔밥-우동-빈대떡-만두-오뎅-돈까스-영양밥-김밥-전-김치-견과-과일-김-멸치-음료 뷰티용품-스킨케어-액세서리-수공예품-한웃-기타 각종 잡화 및 생활용품

표지설명

주민이 3천명인 씨엡립 외곽의 오지마을에 '낫' 이란 이름의 청년은 마을에 단 한명의 기독교인입니다. 낫의 부모님이 우연히 알게된 노르웨이인이 낫을 신학교에 보내주었지만 신학교가 문을 닫어 벧엘교회 이일훈선교사님께서 십여명의 신학생들을 개별 양육하던 중 낫과 함께 마을을 방문하여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노르웨이인이 지어준 지붕만 있는 교회에서 퀸장의 단기선교팀이 VBS와 검안사역 등 선교활동을 하였습니다. 벧엘교회와 낫을 통해 예배가 드려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날이속히 올 것을 기대하며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낫 청년



책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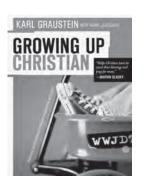
THE RADICAL BOOK FOR KIDS

Recommend Age: 8 – 14 years old

CHAMP THORNTON



Having grown up reading the Bible but not understanding what it was really about, a resource like Thornton's The Radical Book for Kids would have been extremely useful. This book can be read by children without the assistance of their parents, as it brings sound theological truths in a palatable manner for kids to enjoy. It is meant to do three things: 1) teach the basic roots of the Christian faith, focusing on God's word and what it teaches, why we should trust it, and how we can live it out; 2) direct us on how to follow Jesus and stand for him in the storms in life, learning about important Christian figures in history; and 3) bring excitement to learning about the Bible, through illustrations and fun facts found in the Bible. Through the reading of this book, children are equipped to tackle important questions (i.e. How do we know God exists; How do we know the Bible is true?), while doing so by learning fun facts and historical information, by learning new skill, and engaging in fun tasks and challenges applicable to the chapters. I believe this book makes it fun to learn about the Bible and theology not for just children but all who read it, and would whole-heartedly recommend it for all kids and will be definitely using it



one day for the kids of my own.

책 이름

Growing up christian: HAVE YOU TAKEN OWNERSHIP OF YOUR RELATIONSHIP WITH GOD?

Recommend Age: > 14 years old

KARL GRAUSTEIN

There are both blessings and dangers growing up in a Christian family and within the church. Graustein's Growing Up Christian seeks to examine "church kids" who have grown up in this very context. The book is divided into three sections. The first section focuses on how growing up a Christian has both blessings (i.e. supportive Christian community, learning the truths of the Bible) and dangers (being in a bubble, taking grace for granted, false assurance of faith). The second section focuses on how children and teens can think biblically. He speaks of taking ownership of one's relationship with God and not relying simply on parents. The third and final section focuses on how children and teens can live biblically, focusing on practical matters (i.e. how to battle against sin, how to be a good steward of God-given talents). This book is useful for teens who might be struggling to have their own faith, having grown up in a Christian home. An epidemic of children leaving the church as they go to college has only continued to grow as the years have passed by. Teens would benefit from reading this book, as it seeks to lead the young Christian to have their own faith.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2018년 8월 26일 주일설교 출애굽기 39:1-43

모든 건물에는 inspection이 중요합니다. Inspection은 설계대로 잘 되었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Inspection에서 실패하면 모든 것이 힘들어 집니다. 설계대로 다시 고치지 않으면 그 건물은 사용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드시라고 한 성막과 제사장 옷에 대한 하나님의 inspection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inspection을 하십니다. 자신이 6일 동안 만드신 천지창조를 보시고도 매일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보시고 매일 "좋다" 라는 평가를 하셨습니다. 천지창조의 모든 것의 결론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사장 옷과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마치 창세기 1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명령하 신 대로 잘 되었다고 계속 평가하십니다. 최종 평가가 본문 42, 43절에 나 옵니다.

(출 39:4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 사를 마치매

(출 39:43)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얼마나 멋진 결론입니까? 오늘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라는 제목으로 제사장 옷과 성막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옷을 평가하시는 하나님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입은 옷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정장을 입느냐 캐주얼한 옷을 입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옷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 옷은 정교한 옷, 거룩한 옷,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옷입니다.

(출 39:1)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출 28:2)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이 정교한 옷, 거룩한 옷이 얼마나 영화롭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제사장은 이 옷을 입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과 아름다움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 모든 제사장 옷을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평가를 들어보십시오.

(출 39: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제사장 옷을 만들 때 어느 것 하나 자기 맘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100%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말멕을 다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삼상 15:9)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 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 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삼상 15:10)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삼상 15:11a)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내 인생의 평가는 self-inspection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적당히 순종한 사울은 하나님께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듣고 마침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제사장의 옷에 관심이 많으셨듯이 신약시대에도 성도들의 옷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옷, 성도들의 옷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도들이 입어야 하는 옷은 무엇일까요?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은 빛의 갑옷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빛의 갑 옷,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무엇인지 궁금하시지요? (롬13:12,14)

이사야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옷을 입으시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 59:17)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사 59:18)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 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예수님의 옷은 네 가지 곧 공의, 구원, 보복, 열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 공의로워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원수 마귀들과 싸워야 합니다. 맡겨진 사명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옷은 우리가 입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이것인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inspection에 다 통과하시길 축원합니다.

2. 성막을 평가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대로 제사장 옷을 만들었고 inspection에 통과하였습니다.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출 39:32)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대로 다 행하고

성막 곧 회막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명령하신대로 되었다는 평가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하나님의 inspection에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맨 처음 창조 세계를 자신의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사 66:1)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사 66:2)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이 창조 세계를 평가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로 삼으시면서 잘 지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신 약시대에 하나님의 거처는 어디일까요?

(고전 3:16)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전 3:17)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 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에서 '더럽다' 라는 평가를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로서 '거룩하다' 라는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우리에게 거룩을 요 구하시는 하나님은 무조건 거룩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 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거룩은 은혜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사람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 은혜가 있으면 사람은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완전한 삼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무엇이 있습니다.

(창 17:1) 아브람이 구십구 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하시면서 그 앞에 하신 말씀은 "나는 전 능한 하나님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엘샤다이라고 하는데 엘샤다이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신 은혜로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먼저 베푸시고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옷을 지어라, 성막을 거룩하게 지으라고 하신 것은 먼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한 삶입니다. 우리를 거처로 삼으시는 하나님은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며 inspection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스스로도 평강과 자유를 누리고, 허접한 세상을 제압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옷과 성막을 inspection 하신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출 39:43)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순종의 결과는 축복입니다. 축복받은 인생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십니까? 먼저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 축복은 저절로 따라 옵니다. (신 28:1,2,8)

모압 출신 룻이라는 여인은 처절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축복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무엇이 있었는줄 아십니까? 순종입니다. 그는 자기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순종했습니다.

inspection, 옷 - 공의, 구원, 보수, 열심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가요?

성전-거룩한가요?

6 — 아카페 9월/414호 아카페**-7**

2018년 7월 22일 주일설교 (출36:1-38) 넉넉하여 남음



사람의 일생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그 삶을 주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일생을 사는 동안에 사람은 누구나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인가를 소유하게 되며 하나님은 주신 것을 가지고 그 일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결산하십니다. 이 땅에서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마침내 일생의 결산 때에도 남음이 있는 안생이 됩니다.

1. 습관을 바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부터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였고 그런 드림을 계속하였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드리는 것이 습관이였습니다. 그러기에 넉넉하여 남는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앉은뱅이는 앉아서 절망하는 것, 구결하는 것이 습관이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침부터 찬양, 기도, 감사, 헌신, 나누는 습관을 가져야합니다.

2. 은혜를 구하라

본문에 나오는 성막의 덮개는 네 개입니다. 모든 덮

개가 은혜로우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쳐야 내 일생도 예수님처럼 넉넉하여 남는 삶이 됩니다. 다윗은 자기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강하고 담대하게 큰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지만 예수님의 사 랑은 의심했습니다. 능력 많으신 예수님은 사랑도 많으십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내 처지와 형편을 확실히 아시고 돌보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구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넉넉하여 남는 안생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2018년 8월 05일 주일설교 (출37:1-29)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1.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속죄소에 계시며 거기서 이스라엘을 위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속죄소를 향하여 나가야 하고, 거기서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들어야 합니다. 속죄소는 대제사장이 일 년에 한 번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곳이지만 지금은 누구나들어갈 수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물(기본적인 것)과 포도주(맛난 것)와 젖(자라나게하는

것)을 주십니다. 이런 양식을 먹어야 영혼이 삽니다. 속죄소, 교회 가운데 계시면서 말씀을 통해 물과 포 도주와 젖과 같은 다양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2. 거기 계시며 찬양받으시는 예수님

속죄소를 향한다는 것은 화목제물이신 어린양 예수 님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님 은 불의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신 화목제물 이십니다. 피흘려 죽으신 은총을 직접 받지 않은 천 사들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 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 도다' 하고 모든 피조물도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찬양한다면 우리의 찬양은 어때야하겠습니까?

3. 거기 계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

등잔 빛을 밝히는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기 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불이 타오릅니다. 기도가 회 복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거기 계시며 찬양받으시는 예수님, 거기 계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삽시다.

2018년 8월 19일 주일 설교 (출38:1-31) 뜰의 휘장 문



휘장 문을 열고 들어가면 뜰이 나옵니다. 그 뜰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 쌓여 있습니다. 그 휘장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십 니다. 주님은 이 문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문 은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 문 이 열려있다가 닫혔듯이 닫히는 때가 있습니다. 기회 를 놓치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구원은 미루면 안 됩 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1. 용서의 축복

구원의 문을 통과하면 가장 먼저 번제단이 나옵니다. 번제단은 속죄하는 곳, 용서의 제단입니다. 죄로인하여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었고 육적으로 부패하여 죽게 됩니다. 유전적으로 받은 죄, 스스로 지은 죄는 지성, 감정, 의지 등 인간의 모든 영역을 타락시켰고 그 폐해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하고 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는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용서 받습니다. 번제단에 최인대신 짐승이 죽는 것은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시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도 넘어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 죄책감, 죄의 형벌에서 자유한 사람이 됩니다. 구원의 뜰은

용서의 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시 그 죄를 돌아 보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자책할 필요도 없고, 누 구의 정죄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 성령의 축복

뜰에서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나옵니다. 물두멍은 물 (성령)로 씻는 곳입니다. 성령으로 더러웠던 영과 육이 깨끗해집니다. 사람의 배에서 욕심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성령의 사람은 남을 새롭게, 이롭게 하는 자가 되고 만국을 소성케 합니다. 구원의 문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의 축복을 받고 성령의 축복을 흘러 보냅니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서 용서의 축복, 성령의 축복을 마음 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자, 복음, 의인, 예배의 비젼

차세대 비견을 성취하기 위해

이명옥 전도사

8월 24-25일, 1박 2일의 교육부 지도자 캠프를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Wildwood st. Park에서 영아부에서 청년대학부까지의 지도자, 부장단이 함께 하였다. 다음 세대의 비젼과 교육부 전반의 교육 현안에 대한 의제, 각 부서 부장의 역할에 대한 교육도 함께 가진 귀중한 시간이었다.

금요일 오후까지 교회에서 있었던 music camp가 끝나고 출발하여 캠 프지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11시까지 담임목사님께서 '의인의 비젼'에 대 하여 시편 1편을 본문으로 말씀하여 주셨다.

지도자가 먼저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모임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를 우리에게 맡기신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며 퀸장의 4대 비젼인 1. 제자의 비젼, 2, 복음의 비젼, 3, 의인의 비젼, 4. 예배의 비젼을 이루어야 함을 말씀하며 그룹별로 의인의 비젼을 실천하는 내용을 나누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밤 하늘의 별빛을 조명삼아 부장들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교육위원장을 중심으로, 지도자들은 교육목사를 중심으로 새벽 2시가 되도록 2차 모임을 가졌다.

다음 날 새벽을 깨우며 일어나 근처 바닷가에서 산책을 하며 하나님께서 펼쳐 놓으신 자연을 만끽하고 돌아와 전날에 주어진 의제를 각 부서에서 구체화시킬 방안을 다시 논의하며 캠프를 마무리하였다. 교회학교의 자녀들이 자라나며 비젼의 열매가 맺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논의 한 모든 것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잘 실천되기를 다짐하고 돌아온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음을 감사드린다.





THE ONE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2017년에 이어 두번째로 교회의 젊은세대를 위한 부흥집회가 'The One' 이라는 이름으로 9/19(수)-21(금)까지 3일간 덴버북부 한인장로교회를 시무하시는 정유성목사님을 모시고 찬양집회로 열립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인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 하나의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의 '부르심' 에 대한 의미를 다시 일깨워 줄 부흥집회를 통해 젊은 세대의 새로운 영적부흥으로 가정과 교회를 힘있게 세워감과 동시에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젼을 성취해 나갈 진정한 예배자의 길을 찾아가는 집회가 될 것입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전교인을 살아있는 말씀과 찬양, 기도가 있는 부흥집회로 초대합니다. 같은 시간 자녀들을 위한 부흥집회도 (강사:그레이스 장 전도사) 열립니다.



교육의 달 특집

A SINNER SAVED BY GRACE

고등부, QPEM COLLEGE GROUP PASTOR NATE CHA/차평화 전도사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



Hello! My name is Nate. Some of you may know me, others may not, but I have been serving on the pastoral staff here at KAPCQ for the last four years. This past August, the Lord blessed me with a full-time position at our church, and as I settle in, I would like to take a moment to introduce myself and share with you my story.

If you ask anybody who knows me, they will tell you that I don't smell of Flushing or of New York for that matter. Some will think I am from the west coast due to the dark color of my skin, while others will connect my love for fried chicken to somewhere in the south. Canada, the Philippines..., South & Central America, I have heard it all. The truth of the matter is, I am not from any of these places. Born and raised in the 703 (Northern Virginia), this is where my story begins.

Child & Youth Years

I grew up in a Christian household, child to a pastor of a small Presbyterian church. Growing up, my friends would ask me what it is like to be a "PK" (pastor's kid). My reaction: I don't know. The reason is because I never knew it any other way. The memories of childhood were often flooded with religion, and at a young age, I had no choice but to follow the ways of the church. My life was all about serving the church, from morning prayers, to praise team, to mowing the church lawn, to mopping, to vacuuming, to cleaning. I disclose this part of my life not to boast, but rather to share that I did all these things because I was "supposed to". It was never a question of if I wanted to.

The majority of my life was centered around church. And early on that was okay. But as I got older, my interests began to shift. In high school I was on a quest to become that "well-rounded student" that colleges look for, taking a plethora of APs and joining all possible honor societies, working my way up to wind symphony for clarinet, actively participating in Model UN, while playing football for the school team. As my love for sports, music, academics, etc.

안녕하세요! 저는 네잇(Nate)입니다. 여러분 중에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지난 4년간 퀸즈장로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부터는 하나님께서 풀타임 사역자로 임명해주시는 영광도 주셨습니다. 이 즈음하여 제 자신을 소개하고 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군가에게 저를 아는지 물어보신다면 저를 플러싱이나 뉴욕 출신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 검은 피부 때문에 서부에서 왔을 것이라 생각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튀김닭을 좋아해서 남부 출신으로 생각하십니다. 캐나다, 필리핀, 중앙아메리카 등등 안들어 본 출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북버지니아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제 이야기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유년시절과 청소년시절

저는 작은 장로교회 목사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PK (Pastor's kid/목사아들)'로 사는 것이 어떻냐고 물어보고는 했습니다. 제 반응은, "나도 몰라, 왜냐면 나는 목사 아들이 아닌 삶을 살아보지 않았으니깐" 이였습니다. 제 어린시절 기억은 대부분 종교적인 것들이 많았고, 저는 선택의 여지없이 교회 방식을 따라야 했고 교회를 섬기는 일들로 가득 찼습니다. 새벽기도, 찬양인도, 교회 잔디관리, 빗질, 청소기 돌리기, 청소 등. 이것을 굳이 밝히는 이유는 제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같이 행했던 것은 제가 해야했기 때문이지, 정말 원해서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제 삶이 교회 중심이었고 어릴 적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제 관심사가 바뀌기 시작했고, 고등학생 때는 대학교가 원하는 다재다능한 학생이 되기 위해 과다하게 AP과정과 심포니에서 클라리넷 연주, 모의 유엔 참여, 학교 미식축구 대표도 하였습니다. 스포 츠와 음악과 학업 등에 대한 사랑이 커져 갈 수록, 그리스도에 대한 제 믿음은 뒷전에 밀려나게 되었으며 심지어 그것들과 신앙 중 하나를 선택 해야 한다고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부모님들은 교회 일이 바쁘셔서 학교 중요 행사에는 참석하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와 가정형편 이 매우 어려운 시기가 찾아 왔고 결국 저는 교회 예배당 바닥에서 잠을 자고, 교회 밖에서 씻고, 간이화장실을 사용 했어야 했습니다. 제 친구들 부모님들은 렉서스, 벤츠를 타는 동안, 저희 가족은 89년식 토요타 코로



PICTURE FROM FRESHMAN FOOTBALL

continued to grow, my Christian faith took a large backseat. In fact, I felt that I had to choose one or the other. My parents never came to my games or concerts, neither any award ceremonies, sometimes because of work but more often because of church. There was a season when the church and my family (almost synonymous) struggled financially, where I ended up living at church, sleeping on the fellowship hall floor with a few blankets, showering with a hose outside, and using the "Don's John" for my bathroom needs. While my friend's parents drove in Lexus' and Benz's, my family drove a '89 Toyota Corolla. They lived in semi-mansions, I slept on an empty fellowship hall floor. It seemed that what I wanted to do and God were at odds. While these moments of hardship drew me closer to my parents and my sisters, I remember simply wanting to get out. And in a sense, I did.

As I considered where to go to college, I ended up coming to New York City. Here, I quickly found myself surrounded by peers who were not the best influence to my faith. Through my early college experiences, I became money hungry, career driven, and desperate for worldly comforts. As I found myself trying to fit in, I lost touch with God. Not only did I lose touch, but the pride in my heart started to question the existence of God. For over a year, I lived with God in the back of my mind. I continued to go to church every week out of obligation to my parents, but my heart was not for Him. My heart was for me. Even through all this turmoil, God really placed in my heart a lingering question: "What is my passion?" I was good at what I was studying and could go in so many directions, but I had no drive, no reason, and no purpose. I had so many friends around me, but I felt lonely. I had events to attend every night, but I was lost.



FAMILY PORTRAIT IN FRONT OF MY HOME CHURCH

라를 탔습니다. 그들은 좋은 저택에서 살 때, 저는 예배당에서 살았습니다. 마치 제가 하고 싶은 것에 하나님이 반대라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저희 가족을 돈독하게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그 상황을 빠져나오고 싶었고, 결국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진학을 뉴욕에 하면서 제 신앙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친구들에 둘러쌓이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초년에 저는 돈에 굶주리고, 직장 중심적이고, 세상적 안정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 삶에 저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동안 하나님의 만지심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에 대해 자부하던 제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의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일년 넘게 하나님을 잊고 부모님에 대한 의무감으로 교회를 출석하였습니다. 제마음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모든 혼란 가운데도 하나님은 제 가슴에 질문 하나를 주셨습니다. "나의열정은…?" 저는 학업 성적도 괜찮아서 다양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나, 저에게는 방향도, 이유도, 목적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위에 많은 친구들이 있어도 저는 외로웠습니다. 매일 밤 참석할 이벤트가 있었지만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2011년 2월에 하나님께서 저를 확실하게 되찾으셨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잘 모르는 믿음 좋은 형제에게서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전에도 여러 번 들었던 복음이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형제가 복음을 전하는 동안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말씀이 진리라면,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제발 저에게 나타나시어 당신을 위해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 항복을 하자, 그의 사랑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이기심과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모두가 십자

10 - 아카페 9월/414호

교육의 달 특집

Meeting Jesus

It was in February of 2011 when God really beckoned me back to Him. At an ice cream shop with an older brother of faith who I barely knew, I was asked to listen to the sharing of the Gospel. Being courteous, I complied. I had heard the Gospel message so many times before, but this time was different. I had reached a breaking point, where I had everything society told me I needed but was living in emptiness. As this older brother shared the Gospel with me, I remember praying "God, if you are real and scripture is true, then I will give my life to you. Please reveal yourself to me, and I will live for you."

As I surrendered this to God, He showed me His love. He showed me that even through my selfishness and my rejection of Him, He still sent His son. Just as all rejected Christ as He hung on the cross, I too rejected Him. Yet even through my rejection, He loved me so much that He came and died on the cross. As I began to ponder on the implications of what this meant, God impressed on my heart how much He loves me and how unworthy of that love I am. He made me realize that my childhood struggles were because I was doing so much without knowing enough. I had become a servant before I became a son.

In this moment, when I realized the basic Gospel truth, I understood and felt both the shame of my brokenness and sin and the freedom found in Christ. In that moment, and in the season of searching that followed, I was convicted of how this perfect Christ is the one that deserves all my attention and devotion. I knew God was real and I believed it all my life, yet my faith in him was constantly wavering. In my high school struggles, I turned on my favorite Hillsong song "Still" and wept in prayer as it played on repeat. So, when was I "saved"? For that I do not have the answer, but I do know that it is the Lord who kept me from my early childhood years through the struggles, until that very moment when I surrendered everything to Him.

Looking Forward

Looking back, I wish I had come to this understanding sooner, but I know all things happen in God's good timing. I was a very shy and coy kid, who didn't like to talk to anyone. The Lord provided me the best time and place to begin my active relationship with Him. Having understood the implications of the Gospel in my second year in college, God gave me a passion for evangelism and missions. In my college years, I began to go into the streets to evangelize and joined



WESTMINISTER THEOLOGICAL SEMINARY GRADUATION



NYU KCCC

가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못박을 때 저도 그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그 런 저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으로 오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의미를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가운데 제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어린시절 믿음에 갈등은 제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너무 행위로만 많은 것을 하고 있었음을 알 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진정한 자녀보다는 종으로 밖에 살지 않았던 것 입니다. 이제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제 죄에 대한 수치와 예수님 안 에 있는 참된 자유를 동시에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순간 이후에 하나님 을 찾는 기간 동안, 이 완벽하신 예수님 만이 저의 헌신과 집중을 받으 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평 생 믿고는 있었으나, 나의 믿음은 계속 흔들려 왔습니다. 힘겨운 고등학 생 때도 Hillsong Worship에 'Still' 이라는 찬양곡을 반복해 들으면서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언제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것에 대한 답은 없지만, 하나님은 제가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고난중에도 그리고 제가 모든 것을 항복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both a campus ministry and church (KAPCQ), which guided me to mature in my faith. Through internal and external affirmation, the Lord called me to be a minister of His Word. After exiting college, I spent a short stint working for a solar energy company. After that, I entered into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Four years later, having been equipped in my theological studies, having been blessed with old and new friends, and having grown through serving the church in various ways, the Lord has called me to KAPCQ to serve in a full-time capacity. My heart for missions, evangelism, the next generation, college and young adults has continued to grow, and as I pour out my heart before the Lord and His church, I am excited to see what He will do. I am but a sinner saved by grace, enjoying the blessings of God and seeking to give Him every ounce that He has given to me. As I come on to serve as a full-time minister at KAPCQ, I believe the Lord has something amazing planned for us. I am excited to get to know and get to serve and get to experience life with all of you. With that being said, please say hello if you see me around. And, if I see you around but have forgotten your name or face, please be merciful! For I am simply bad with names and faces.

앞으로의 사역

뒤돌아보면, 좀 더 빨리 이 모든 것을 알았었더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일어남을 믿습니다. 왜냐면, 저는 매우 부끄러움이 많은 내성적인 아이여서 누구와도 이야기 하는 것을 꺼렸는데 하나님은 그분과 제가 역동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 가장 좋은 때와 장소를 예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대학교 2학년, 복음을 이해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열정을 주셨습니다. 저는 거리에서 전도를 시작하였고 캠퍼스사역과 교회(KAPCQ)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이를 통해 신앙이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내적,외적으로 믿음이 견고해지는 과정을 통해 주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사역에 저를 불러 주셨습니다. 학교 졸업 후 태양에너지 회사에서 잠시 근무한 후에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에 입학하였습니다.

4년 후 이론적 지식을 가지게 되었고,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교회를 위해 다양한 섬김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퀸즈장로교회 풀타임 사역자로 불러 주셨습니다. 선교, 전도, 다음 세대들, 대학부와 청년부를 항한 제 마음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제 마음을 주님과 그의 몸 된교회에 쏟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은혜로 구원 받은 죄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즐거워하며, 그가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신 것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더욱 알아가고 섬기고 함께 삶을 경험하는 것이 기대됩니다. 저를 보시면 인사를 해주시고요, 제가 만약 이름이나 얼굴을 잊어버렸다면 너그러이 이해 해주세요, 제가 얼굴과 이름기억을 잘 못할 뿐입니다.

^{한나 선교위원회} 정성스레 송편을 빚으며 세우는 새 성전

올해는 9월24일이 한가위(추석) 입니다. 풍요와 넉넉함이 있는 한가위, 가족이 한 상에 둘러 앉아 송편을 먹으며 행복한 정담을 나누는 명절입니다.

한나선교회에서 맛있는 송편을 빚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직접 방앗간에 가서 불린 쌀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송편 피를 만들고 달콤한 깨를 속에 넣었습니다. 웃음이 가득한 모습으로 송편을 빚으시는 한나선교회 회원들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송편은 판매수익금 전액이 새 성전 건축헌금으로 봉헌될 것입니다.



CAMBODIA MISSION TRIP 2018

하나님의 약속 - 캄보디아



남형욱 장로



오지마을의 아이들

2018년 캄보디아 단기선교는 작년에 이어 벧엘교회사역, 공립학교사역, 의료(안경)사역, 지역교회방문 사역 등이 지속성 있게 이루어졌으며, 올해는 3,000명 주민 중 크리스찬이 1명 뿐인 오지마을 사역이 새롭게 추가 되었습니다.

2017년 사역을 기초로 연속성 있게 사역을 준비하다 보니 올해는 좀 더 전문적이고 발전된 모습으로 사역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매일 새로운 지역이나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육체적으로는 많이 힘들었지만 10일간의 일정 가운데 17명의 대원들이 1,875명을 대상으로 vbs, 전도 폭발, 검안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한 은혜가 더 하였던 사역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1. 공립학교 사역

번엘교회 근처의 공립학교와 더불어 새롭게 오지마을의 공립학교까지 두 군데의 공립학교를 방문하여 교실에서 직접 복음을 전해도 좋다는 교 장선생님의 허락을 받아 아이들에게 영어,미술,음악을 가르치며 직접 예수님을 증거하는 귀한 시간들을 갖었습니다.

2. 오지마을 사역

출발 몇일 전부터 이일훈 선교사님께서 중등부학생부터 원로장로님까지 다양한 세대가 있는 이번팀이 육체적으로 감당할수 있겠느냐고 몇번이 나 확인하실 정도로, 사역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일정도 만만치 않은 오지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벧엘에서 차로 3시간여의 거리였지만 마을주민이 직접 저희 차량을 앞에서 인도하지 않으면, 마을을 찾아 들어가기조차 어렵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으며 그동안 외부 선교단체가 한번도 발걸음을 하지 않은 지역이였습니다. 얼마전까지 3천명의 주민중 크리스찬은 단 한명만 있던 지역이였으나 벧엘교회 선교사님들 노력으로 그 한명의 크리스찬을 통해 마을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 중이였습니다. 이곳에 오래전에 노르웨이인이 지어준 지붕도 없이 벽만 있는 교회에 마을주민과 어린이등 300여명이 모였습니다. 전기가 없어 방송장비가 없는 가운데도 찬양과 바디워십, 전성호 전도사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미니바이블을 색칠하는 꽁끼야 전도사님 교회 아이들



처음에는 무표정이시더니 안경을 쓰신 후 환하게 웃으신 할아버지



통역으로 사역을 도운 현지청년들과 마지막날 벧엘교회 벽화를 마무리한 후

3. 청소년 집회

익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캄보디아는 폴포트정권의 지식인 탄압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어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주일학교사역에 공을 들이고 계신 가운데 어느덧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자라나서 별도의 청소년 연합 집회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발전되었습니다. 저희 단기팀이 있는 일정 가운데 마침한달에 한번씩 돌아가며 주관하는 청소년 엽합 집회가 주일 오후에 벧엘에서 가지게 되어 지역의 청소년들과 예배를 드리고 축구게임을 하는 등, 캄보디아에서 맺어지는 결실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4. 청년선교부와 선교사님 간담회

작년에 이어 청년선교부의 청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사역에 동참하여 더욱 풍성한 사역이 가능하였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몇차례에 걸친 청년들과 이일훈선교사님의 만남으로 청년선교부란 이름에 걸맞게 어떤 방법으로 캄보디아 사역을 도울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여 '365선 교'의 기초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 도착하기까지만도 20여 시간이 걸리는 먼길이지만 다양한 세대가 참여한 2018 캄보디아 단기선교는 대원들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눈에 보이는 정말 꿈같은 경험을 체험하였습니다.

- 누군가에게는 주어진 삶의 나머지 시간들을 캄보디아에서 헌신할 사전 답사로
- 누군가에는 그 땅과는 떨어져 있지만 가진 재능을 그 땅을 위해 365 일 헌실할 결심을 갖게 하고
- 누군가에게는 내년에는 중기선교사로 캄보디아를 다시 방문할 기도 제목을 주시고
-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며 남은 인생에 대한 하나 님이 주신 비젼의 확신을 갖게 하고

단기선교사로 선교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에 더하여 대원들 개인에게 주시는 비젼과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국 뉴욕의 퀸즈장로교회와 캄보디아 벨엘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이 땅을 거두실 것을 확신합니다.

365선교

인터넷의 발달로 지역과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어느 곳에 서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땅끝 선교지를 위해 365일 헌신 할 것을 다짐한 퀸장 청년 선교위원회의 선언

라이즈업 캄보디아 청소년집회

벧엘교회와 주변교회들이 연합하여 캄보디아의 미래를 책임 질 350여명의 청소년들의 숙식을 제공하며 신앙과 영적부흥을 위한 집회를 9/4-8일간 열었습니다. 집회 홍보영상과 포스터를 퀸장의 청년 선교위원회에서 제작,지원함으로365선교사역의 첫 열매를 맺었습니다. 앞으로도 벧엘센터의 필요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캄보디아 선교에 동역할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14 — 아가페 9월/414호 아카페**-15**

cambodia mission trip 2018 리코더 소리로 듣는 하나님의 음성



서다인 청년

사실 선교라는 단어는 저에게 적용되지 않는 단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하게 될 일이지만 지금 당장은 아닐거라고 여기며 교회에서 단기선교 광고를 할 때마다 "누군가 가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습니다. 뉴욕에 온 지 3년이 되어가던 어느 날, 뉴욕의 퀸즈장로교회로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뭘까 고민하던 중 캄보디아 단기선교팀에 2명의 인원이 더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듣고 흘렸던 여느 때와는 달리 왠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아서 오래 고민하지 않고 캄보디아 팀에 조인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선교 준비를 하며 당연히 제 전공과 직업과 관련된 미술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될 줄 알았는데, 리코더 사역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제게 익숙한 미술은 크게 걱정이 되지 않았지만, 리코더 사역의 경우에는 80-100명의 많은 아이들을 가르쳐본 적도 없었을 뿐더러 학교에서 음악을 배우지 않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리코더를 쉽게 가르쳐줄 수 있을지 고민이되어 모든 게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하며 캄보디아 벧엘교회에 도착했을 때는 준비해갔던 PPT도 사용할 여건이 되지 않아 몸이 가는 대로 상황과 시간에 맞추어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가 아닌 캄보디아어로 숫자를 말하며 한박자씩 "God Made Me"라는 곡을 가르쳤는데 별 감흥이 없어보이던 아이들이 실제로 리코더를 받자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줍어하던 아이들도 앞에 나와 서툰 실력으로 열심히 연주했습니다. 교회에서 했던 VBS 크래프트와 색칠공부를 할 수 있는 미니바이블은 두고 가는 아이들이 몇몇 있었지만, 리코더는 한 아이도 빼놓지 않고 소중하게 손으로 꼭 쥔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사역을 마친 후, 미국으로 돌아가기 하루 전날 벽화를 그리기 위해 벧엘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적하고 조용한 교회 건물밖에서 한창 스케치를 하고 있는데 동네 멀리에서 "God Made Me" 리코더 연주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뿌린 씨앗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마치 한 아이의 리코더 연주를 통해 말씀해주시는 것같았고,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우리를 완벽하게 사용하여 주신다는 생각에 주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리코더 연주에 집중하는 아이들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준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생애 첫 선교에 발을 디뎠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깨달음을 주셨고, 오히려 완벽하지 못한 나를 통해 완벽하 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나를 뉴욕으로, 퀸즈장로교회에 있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캄보디아 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보여주시기 위함 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꿈같고 은혜가 가득했던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끝나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단기 선교 참 은혜로웠어" 라는 한마디로 이렇게 선교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지금껏 더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해 사용했다면, 이제는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려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데 저의 모든 것을 쏟고자 합니다. 현재 캄보디아는 공산주의와 독재정치로 많은 도움과 기도가 필요한 나라이지만, 130년전만 해도 복음이 존재하지 않았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 곳곳으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캄보디아를 통해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히 내가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19

arizona mission trip 2018 하나님의 계획

박제인 집사

찬양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 교회를 조금씩 알아가며 봉사자, 참여자로 있던 저는 선교광고를 접하며 마음에 늘 부담으로 있던 선교에 대한 호기심과 중학교 시절에수양회선교사님께 받은 도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기쁨이 생겼습니다.

전도사님과 리더를 포함한 20명의 선교팀원들이 함께 Navaho Nation Area 안에 Kaibeto Nazarene Church로 갔습니다. 두팀으로 나뉘어 교회 근처의 동네를 걸어다니며 전도지를 나누어주는데 도무지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 걱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VBS로 청장년들과 어린 영혼들을 100여명이나 보내주셔서 천국복음을 전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어색해하던 어린이들이 하나둘씩 모여드니 오히려 내가 더 흥분하고 뭉클해지는 감정들로 "주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라고 고백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초롱초롱한 아이들의 눈빛……! 어린이들과 청장년들과 복음을 나눈 시간들은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교를 통해 내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 볼 수 있었고 나는 얼마나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팀원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 앞에서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나가야 지?"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가겠습니다.





아리조나 현지 사역자에게 온 편지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JAMES LEE 선교사



뉴욕 퀸즈장로교회에서 청소년들과 성인들 21명이 아리조나 사역지를 7/20 - 27일 방문하여 선교사역을 감당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출판된 교재가 아닌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을 예수님과 기드온, 십계명의 주제에 담은 단막극을 열정적으로 전해준 사역은 각각 10명 씩 두팀으로 나누어 20마일 거리의 간격을 두고 VBS를 동시에 진행하 여 아동 참여를 보통때보다 배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들과 젊은 청년들, 영어권 성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 팀원들의 단결력과 성숙한 섬김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았습니다. 먼곳에서 정신적, 영적, 물질적으로 섬겨주시고 육체적으로 헌신적인 사역을 한 단기 선교사들을 파송하신 교회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시길 기도 합니다.

이번 선교팀의 방문을 통해 현지인들과의 교제가 돈독하게 되었으며 청소년, 청년들의 참여가 두드러지게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선교팀원 모두의 손을 잡고 이 모든 영광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두 손 높여 올려드립니다.

광야적 투박함과 간절함이 성령안에서 뉴욕과 만나다



최원일 장로

"알마티와 뉴욕의 퀸장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중앙아시 아를 향한 섭리, 복음을 위해 산을 넘는 이 위대한 동역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난 7월 29일 카자흐스탄 단기선교를 시작하는 주일에 드려졌던 알마티 퀸즈장로교회 증축감사예배에서 에베소서 2:19-22를 바탕으로 "연결된 건물 지어져 가는 우리"라는 주제의 김성국 담임목사님이 증거한 말씀처럼 중앙아시아 대초원을 향한 퀸장의 복음행진은 올 여름 단기선교를 통해 계속 되었다. 구소련이 무너진 다음해인 1992년에 카자흐스탄에 알마티 퀸즈장로교회를 세운 이래 26년째다.

이날 증축감사예배에서 김관중 선교사님은 경과 보고를 통해 "증축공 사를 결정한 직후 벌어진 러시아발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카자흐스탄 통 화가치 폭락으로 인해 지난 3년여 동안 수많은 경제적, 물리적 환난이 있 었지만 모두 이겨내고 드디어 주님의 성전을 증축하는데 성공했다. 단 1



전도폭발 훈련 시범

땡게의 빚도 없이 교회를 증축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아니고 설명할 도리가 없다"고 회고했다. '땡게'는 카자흐스탄의 화폐다. 이어 "위기때 마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준 뉴욕의 퀸즈장로교회의 사랑에 감사한다"며 울먹이는 순간 온 회중은 숙연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동역의 감동을 함께 나누었다.

이날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시작 된 올해 카자흐스탄 단기선교는 중앙 아시아 3개국 현지인 목회자 및 평신도지도자들을 위한 신학교강의와 전도폭발훈련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우리 교회 파송선교사인 알마티 퀸즈장로교회 김관중 목사는 중앙아시아 선교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중심과제 가운데 하나로 현지인 목회자를 양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 다. 이를 위해 중앙아시아에 운영되고 있는 장로교 계열 신학교 커넬대



커넬대학교 카지흐스탄 알마티 캠퍼스 신학생 단체사진

학교와의 연계사역을 진행하면서 알마티 퀸장을 강의 캠퍼스로 제공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스탄 등 3국에서 온 신학생 25명을 위해 강사로 초빙된 김성국 담임목사님은 단기선교기간 동안 신학생들에게 '구원론'을 강의하였다. 카작어, 러시아어 및 한국어에 능통한 알마티 퀸장의 굴잔 전도사의 완벽한 통역을 매개로 김성국 담임목사님은 특유의 열정적인 강의 방법과 토론식 수업을 통해 성령님이 이끄시는 열강을 이어갔다.

같은 3개국에서 온 또 다른 25명의 사역자 및 평신도 리더들을 대상으로 최원일 장로는 알마티 퀸장 2층 예배실에서 3일 동안 전도폭발 집중 훈련을 진행했다. 훈련생 가운데는 말을 못하는 언어장애인도 3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말을 못하니 수화를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이들이 수화통역을 통해 훈련을 거뜬히 감당하는 것을 보고 장애가 없는 다른 훈련생들이 더욱 도전을 받는 은혜와 감동의 현장이었다. 전도폭발 훈련은 고려인 3세 김옥자 집사와 굴잔 전도사가 번갈아 통역으로 수고하였다. 훈련생들도 12개의 조를 이루어 복음개요와 예화들을 직접 시연하며 훈련함으로서 전도현장에 곧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장되었다. 카작스탄의 한 시골 마을의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알렉산더는 훈련를 마무리 짓는 간증을 통해 섬기던 시골교회가 정부의 박해로 문을 닫게 된 상황을 소개했다. 그 후 얼마동안은 하는 수 없이 몰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만족해야 했지만, 용기를 내어 전도를 시작하면서 교회가다시 문을 열게 되는 기적을 체험했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전도를 중단할수 없는 이유를 강조했다. 자신에게는 이 훈련이 "세상의 어떤 다른 세미나와도 비교할수 없을 만큼 값진 훈련"이었다며 전도에 대한 구체적인내용과 방법으로 무장할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

미용사인 설정애 권사님은 틈나는데로 신학생과 전도폭발 훈련생들의 머리를 손질해 주며 지난 십수년 동안 알마티에 지속해 온 헌신을 올해도 이어갔다. 동행한 김명자 사모님, 이양미 전도사님, 정길표 장로님은 김관중 선교사님 내외 분과 더불어 신학교 강의 및 전도폭발훈련 현장을 분주히 오가며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돕고 해결하며 동역했다.

온종일 계속된 강의와 훈련의 강행군에 이어 저녁마다 열린 부흥집회에 서는 중앙아시아에 복음이 부흥하기를 바라는 현지인들과 선교팀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눈물과 은혜의 시간이 계속 되었다. 땀으로 범벅이 된 몸과 목을 아끼지 않고 마지막 힘까지 다 쏟아 붓는 담임목사님의 말씀증거와 예배인도, 언어를 초월한 찬양의 은사를 가진 찬양리더 샤샤와 알마티 퀸장 청년찬양팀의 은혜로운 찬양, 중앙아시아인 특유의 광야적 투박함과 간절함이 드러나는 현지인들의 통성기도와 간증은 그땅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꾸밈없이 증거하고 있었다.



중앙아시아 복음화를 이끌어갈 주역들인 신학생, 평신도 지도자들의 화이팅

18 — 아가페 9월/414호 아가페 - **19**

PHILADELPHIA MISSION TRIP 2018

HEALED BY MUSIC, TOUCHED BY GOD



DIRECTOR OF CSI CAMP - MS LESLIE MARTINEZ

It was a true blessing to have the mission group at our CSI camp this year. They worked very hard with our campers to be able to perform the musical. They showed our campers love and patience throughout the time that they shared with us.

The team worked very hard to teach our campers the lines and lyrics to the musical. They continuously had faith that the campers were going to pull through and put on an amazing show. They motivated the campers to work harder, and push themselves out of their comfort zones. The campers were truly excited to put everything together. They were attentive, and really were looking for guidance from the team in what they should be doing.

Throughout the week, even during the times that they were not practicing, the kids were singing the songs and trying to imitate the different scenes from the play. It was nice to see that they kids had found something that they really enjoyed doing. But not only were they rehearsing, but they members of the mission group showed them that they had to heavily rely on God for the performance to go well. They prayed with

올해 CSI 캠프에 KAPCQ 선교팀이 오신 것은 진정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캠프 참가자들이 뮤지컬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 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사랑과 인내를 아이들에게 직접 나눠 주고 알게 해주었습니다.

팀원들은 아이들이 뮤지컬 노래가사와 대사를 외우도록 열심히 가르쳤고, 아이들이 연습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마침내 멋진 무대를 만들 것을 계속해서 믿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더 열심히 하도록 독려하고 아이들이 한계라고 생각했던 것들에서 더 나아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모든 것을 해냈고 정말 흥분했습니다.

준비하는 일주일 동안 연습하지 않는 시간에도 아이들은 노래를 연습하고 다른 장면들을 따라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진정으로 즐거워하는 것을 찾은 모습이 좋았습니다. 또한 선교팀은 단지 리허설과 연습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성공적인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연습 중에 좌절했을 때도 선교팀들은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도록 몸소 보여주었고,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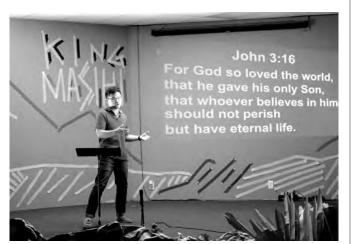


VBS 미술시간, 직접 무대 소품을 만드는 아이들

them, and showed them not to give up even when they were getting frustrated. For me that was the most overwhelming thing.

The parents were also very shocked to see that their kids were so involved and so excited. The parent continuously went to staff members to talk to them about how proud they were of their children and the work that they put in to make it all possible. I was very emotional to see them put everything together, and really put their all into something that they were all a part of. I think that it was an experience that really showed how God's people can come together, and put something together, that not only brought us closer, but it also brought us closer to God because we had to rely on him to push us through to the final product.

For that I am very grateful for the mission group for everything that they have taught the campers and our CSI staff. Please continue to keep us in your prayers as we prepare for more years at CSI, and that we continue our relationship with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뮤지컬 공연 후에 불신자 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오인수 목사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그토록 소속감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무척 놀라워했습니다. 부모님들은 끊임없이 캠프 스텝들을 찾아와 아이들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말해주었으며 아이들이 쏟아 부은 노력에 대해서도 칭찬하였습니다. 저 또한 아이들이 모든 것을 해낸 것과, 예전에는 자신들과 동떨어져 있던 것에 모든 것을 쏟아 낸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번 경험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무엇인가를 협력하여 만들어 낼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것은 단순히 우리를 가깝게 만든 것을 넘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마지막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교팀이 우리 스탭들과 캠프에 참가한 어린이들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있을 CSI 사역과 퀸즈장로교회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위해 부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들이 만든 소품을 가지고 뮤지컬에 참여하는 아이들



VBS 태권도 시간 - 군무연습

20 - 아카페 9월/414호

PHILADELPHIA MISSION TRIP 2018

KING MASIHI

오인수 목사





<뮤지컬 KING MASIHI 줄거리>

마시히 왕은 백성들의 사활을 건 싸움을 승리했다. 하지만 식량 피해가 막심했고, 그의 군인과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가 기에는 식량이 충분치 않았다. 식량을 훔치는 자에게 공개 적으로 채찍형을 처할 것이라 공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식량 도둑이 있음을 발견했다. 왕의 동생은 포로로 잡힌 한 여인 을 사랑해서 식량을 구해다가 주었고, 여인은 선물로십자가 목걸이를 동생에게 줬다.

어느 날 굶주린 백성들 가운데서 포로를 불태워버리자는 폭 동이 일어나고 왕의 동생은 사랑하는 여인을 보호하러 포 로수용소로 간다. 이 모습을 본 왕의 어머니는 결심을 하 고 어디론가 나선다. 장수가 왕에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이 있다고 보고한다. 좋은 소식부터 말하라 하자 좋은 소식 은 도둑이 잡혔고 폭동이 잦아졌다는 것이고, 나쁜 소식은 그 도둑이 왕의 어머니라는 것이다. 왕은 깜짝 놀라고 갈등 에 휩싸여 동생을 불러 다그쳤다. 싸우는 중에 동생은 어머 니가 자신을 위해 붙잡혔음을 깨닫는다. 왕은 동생 목에 걸 린 십자가 목걸이를 보고 어렸을 때 배웠던 십자가 이야기 를 떠올린다. 왕은 형을 준비하라 명하고 어머니를 묶은 기 둥으로 다가가 왕의 옷을 벗고 어머니를 감싸 안고 형을 집 행하라 했다.

<뮤지컬을 통해 얻고자 했던 것>

CSI 아이들이 뮤지컬을 연습하고 공연하는 것을 통해서 먼저는 예수님의 희생과 그 사랑으로 인해 가족이 회복되는 메세지가 아이들에게 전달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서 노래하고 춤추며 공연하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회복 되었으면 했습니다. 또한 공연을 보시는 부모님들과 가정, 교회에 선한 울림을 줌으로 전도의 기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필라델피아 선교팀원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소중한 경험을 체험하고,전도했을 때 얻는 행복에 섬김의 기쁨까지 누렸으면 했습니다. 기도하고 기대한 것 이상으로 은혜와 기쁨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킹 마히시' 역을 맡은 아드리아

HARLEM MISSION TRIP 2018 복음과 사랑의 음식 나누기

문인숙권사

퀸장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16:15)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세계 곳곳에 단기선교를 다녀온다. 어느덧 8월도 끝자락을 향하고 있는데 더위는 지치지않고 그 유세를 더하고 있으나 더위도 퀸장의 선교를 향한 열정을 막지는 못한다. 8월 28일, 마르다,마리아 선교회가 주축이 되어 새벽부터 여교역자들과 함께 할렘선교지에서 나눌 점심식사를 위한 (불고기,샐러드, 수박,붕어빵,과자,음료등) 준비가 한창이다.

10시 30분 출발이다!

출발 전에 대원들은 손에 손을 잡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담임목사님의 뜨거운 기도를 받고 교회 밴에 탔다. 먼 곳이든 가까운 곳이든 선교지를 향해 갈 때 긴장감이 없을 수 없는데 창밖에서 담임목사님께서 두 손을 머리에 올려 하트를 만드시고 응원과 웃음을 주시는 모습으로 긴장했던 맘이 조금 덜해졌다.

할렘 선교는 맨하탄 Soul saving Station Church에서 브니엘 선교회 김명희 선교사의 Soup Kitchen사역을 섬긴다. 김재형목사님의 예배인 도로 말씀받기 전, 마음문을 열기 위한 찬양과 그레이스의 전통 태극무 가 이어졌다.

말씀은 차평화 전도사님이 요한복음 14장 1-7절 'JESUS, The Only Way'라는 제목으로 전하셨다.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되는데 그때 어디로 가고 싶으십니까?"라고 문자 "Heaven, 천국이요"라고 답하는 회중에게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죄인 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를 깨끗케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아 천국에들어가게 된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 생명의 길이요, 진리 되신다"는 천국복음을 선포하셨다.

복음선포 후 콜링 시간에 10여명의 참석자가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였으며 김명자사모님, 전도사님, 마리아, 마르다 선교회, 그 외 참석한 모두가함께 나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김재형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특별공연으로 G2G 어린이들이 찬양을 드리니 귀엽고 흥겨운 찬양소리에 참석자들이 동심으로 돌아간 듯, 함께 박수치며 노래하는 모습에서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감격이 더하였다. 주향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격시자득옥 향하 추보의 기도



G2G 어린이들의 마음을 여는 찬

의 부채춤과 두드림의 난타공연 후 정성으로 준비해 간 음식을 나누었다. 80여명의 많은 인원이였지만 질서 있게 음식을 나누고 맛있게 음식을 먹으며 감사를 전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할렘 선교에도 함께 하신 주님의 역사를 보며 감사를 드렸다.

선교를 마치고 밴이 교회에 도착해 창밖을 보니..... ^^ 담임목사님, 보낼 때 그 모습 그대로 손을 머리에 얹어서 하트를 만드시고 반겨 주신다. 천 마디의 격려와 위로, 사랑의 말이 그 모습에 오롯이 베어 나와 우리에 게 전해졌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에 목자장되시는 목사 님과 성도,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한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퀸 장이 아름답다.

22 - 아카페 9월/414호

수련회 스케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인생



청년선교부 김미연

지난 8월 16-18 일 2박 3일 간 뉴저지 리벤젤 수양관에서 청년연합 여름수련회를 가졌습니다. 'Radical'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시편 34편 8절의 말씀으로 조상명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된 이번 수련회는 서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수 있었던 뜻깊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한달 동안 매일 새벽기도로 준비해온 수련회는 많은 청년들이 함께 기도로 준비했기에 더욱더 기대되고 기다려졌습니다, 수고하고 준비한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셔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워싱턴 DC 여는교회'를 개척하신 조상명 목사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간증과 예리하고 도전케하는 말씀, radical lifestyle을 주제로 한 세미나, 전성호 전도사님의 선교세미나를 통하여 신앙을 다시한번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금요일 저녁에는 여호수아의 애굽과 가나안을 주제로 전해진 말씀들을 통하여 그동안 느슨했던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해져 '느끼해'지지 않았는지, 내안의느끼함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였고, 새로운 영적인 각성이 있게 하였으며 회개와 더불어 심령에 성령의 불을 간구하며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인수 목사님께서 수련회 주제가를 만들어주셔서 찬양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간절함을 더욱 간절히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깊은 예배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게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겉모습만 보며 부러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의 성공, 명예, 소유들을 보면서 참 행복하겠구나! 저 정도면 걱정거리가 없겠구나! 라고 부러워합니다. 적당히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여 하나님도 섬기고 적당히 내가 원하는 것도 하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와 버려야 할 자세에 대해 구체적인 삶의 목표를 제시하는 확실한 메세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의 한 메세지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성령의 큰 능력을 체험하는데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였습니다. 퀸장의 청년들을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그어느 때 보다도 가슴 절절히 느끼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련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소중한 수련회를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련회 이후 삶의 영역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신실한 청년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청년연합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주신 교회와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청년대학부, 선교위원회 연합 찬양팀



조상명 목사님과의 질문응답시간



전성호 전도사님의 선교세미나

수련회 간증

더욱 깊은 신앙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



청년선교부 고은비

먼저, 당연하지도 않고 다시 또 돌아오지 않을 이번 수련회를 허락하신 주 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수련회에서 처음으로 찬양팀 인도자로 섬기게 되었는데, 처음 찬양 인도자가 정해지고 수련회를 준비하며 연습 할 동안 에도 왜 찬양을 인도하는 자리에 내가 있는지? 왜? 그리고 어떻게? 나같은 사람이 그자리에 있을수 있는지를 의심하며 불안해 하였습니다. 수련회 바로 전 금요예배 때 수련회 찬양팀이 인도를 맡게 되었고 그 날 저는 살 면서 한번도 느끼지 못했던 마음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던지 벌컥 눈물이 났고 지나가던 언니를 붙잡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금요 예배는 잘 끝났지만 저의 마음의 무거움은 사라지 지 않았습니다. 수련회장에서 마음의 무거움은 수그러드는듯 했으나 계속 됐고 그 무거움은 기도하는 것까지 방해하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내가 모르는 죄의 문제인거 같아 그 죄를 찾다보니 죄에 집중하게 되고 죄에 붙들려 더욱 기도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날 밤, 예배가 끝나고 조상명 목사님께 여쭤볼 기회가 생겨 대화를 하던 중에 목사님께서 단순히 몸과 마음의 피로가 막힘이 될수 있다고 죄에 붙들리지 말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때 문득 저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찬양 인도자의무게가 생각나서 말씀드렸고 목사님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저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깊은 신앙의 스테이지 그리고 더욱 깊은 헌신의 자리로 가길 원하시는거 같네요"라고 하시며 부족했던 저의 모습들을 칭찬하시며 더욱 헌신하는 여성 찬양사역자가 되길 기도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후로 저의 입에서 "왜 저입니까?"라는 말이 아닌 "하나님, 저의백지수표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더욱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는 고백들이 쏟아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이상 이 옷이 내옷이 아닌 양 행동하고 의심하

기 보다 이 옷을 입혀주심을 감사하며 더욱 나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자리에 순종으로 저를 드리길 다짐하였습니다.

수련회가 끝나는 날인 8월 18일, 저는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불법으로 저의 또다른 identity를 만들어 다카의 신분으로 살고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 께는 죄임을 깨달고 불법으로 다카를 리뉴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다카 를 포기하는 것을 선택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들 이 있어 이 광야같은 세상에 오로지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빛이 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카를 붙들고 있을 때에 전혀 느끼지 못했던 평안 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정말 끝이 나는 순간이 다가오니 내 마음에 불안감 이 조금씩 올라 오는듯 했고, 그 불안감을 하나님께 토로할 때 내가 신분 을 애굽의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서 모든걸 공급하시고 함께 하셨는데도 그 애 굽의 것들을 그리워 했던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신분과 신분이 주는 안정감을 보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누리고 정복하라고 하신 말씀이 저에게 크게 다가왔고, 내가 비록 신분없이 살지만 그 신분은 애굽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미 가나안에 들어와 있으며 그리고 이미 누리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다른 수련회들과 다르게 감정으로 울부짖는 것보다 이성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성장한 그런 수련회였습니다. 그렇기에 수련회를 통해 주신 은혜를 내상 속에서 더욱 기억하게 됩니다. 저와 모든 청년들이 이 은혜를 잊지 않고매일 순종으로 물을 채우며 가나안을 정복하고 누리는 주님의 아들딸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수련회 간증 하나님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하는 축복과 기쁨



청년대학부 심건우

안녕하세요? 청년대학부 심건우 청년입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는 참석할 수 있었던 것 자체만으로도 제게는 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8월 16일 한국에서 도착할 예정이였던 저는 본래 수련회 참석이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처음 수련회를 준비할 때 까지만해도 후발대가 없었고 본대 출발만 예정되어 있었기에 수련회 가는 것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청년모임에서의 수련회 준비과정에서 저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참여하기 힘들었고, 이번 여름에는 수련회를 못 간다는 아쉬움만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교회에서의 청년부수련회도 16일이였어서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련회 몇주전, 후발대가 생겼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기쁜 마음으로 주저없이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집에 짐을 조금 정리하고 바로 수련회장으로 갔습니다. 조상명 목사님의 말씀 끝자락에 도착하여 설교 말씀을 모두든지는 못했지만 말씀 후에 기도시간에 하나님께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지를 알았습니다. 이렇게라도 수련회로 인도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넓은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저를 수련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돌려드립니다. 또한 한국방문 일정가운데 있던 저를 잊지 않고 수련회 참여를 계속 권하며 한 공동체의 소속감을 실감하게 한 회장과 청년대학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둘째날 오후 - 레크레이션 시간

FARM TRIP

주님과 함께 간 소풍..

새로운 한 학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PTA와 선생님들, 퀸즈장로교회 유년부 식구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서로 얼굴을 익히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기 위한 모임을 시작하기 위해 소풍을 떠났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의 지체로 서로를 보며 함께 반가움으로 인사하고 더 나아가서는 함께 손잡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자 하는 새학년의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이송은 집사

유년부에서 green meadow farm으로 trip을 간다고 했을때 약간의 일탈을 꿈꾸며 아이들과 추억을 만들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했다. 무척이나 더운 날씨였으나 예상 외로 많은 가정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했다. 교회 안에서 마주치긴 하지만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분들과도 같은 장소에서 함께 같은 경험을 하며 친밀해 질수 있는 시간이었다. 라마, 염소, 양, 토끼, 닭, 메추라기등의 동물들에게 상추를 먹이고 포니도 타보고 짚을 실은 거대한 트럭도 타며 뛰어다니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놀았다. 예전에 리즈와 함께 학교에서 farm으로 같이 소풍 간 적이 있긴하지만 주 안에서 하나로 묶인 우리가 함께 시간을 내고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나눈 시간은 확연히 달랐다. 신나고 재밌는 시간이었고 모두에게 커다란 기쁨이 있었다. 싸온 음식들을 나누고 서로 얘기하며 많이 웃었다.

세상의 휴가가 줄 수 없는 기쁨과 회복이 우리를 덮었다. 반복되는 일상으로부터 나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속에서 회복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하신 하나님, kapcq 공동체 소속만이 가질수 있는 친교의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주신 목사님과 전도사님, 교회와 유년부에게 감사하다. 앞으로도 계속 힐링되는 outing을 기대한다.



우리 함께 자연속으로 가 볼까요?



반가워 친구야, 나는 라마라고 해

낚시대회 참가기

오늘은 제가 어부 베드로 입니다

조성순 집사

전날까지 맑기만 하던 하늘도 무심하게 아침부터 비가 흩날린다. 그래도 우리는 간다! 8월 둘째주 총동원 새벽 예배를 드린 60여명의 퀸장 식구들은 삼삼오오 양순관 친교실로 모여 들었다. 봉사부 함용식 장로가 준비한 멀미약을 받아든 일일 어부들은 준비된 깁밥으로 아침을 해결하고 5대의 준비된 차량에 몸을 실었다. 30여분만에 도착한 Sheepshead bay엔 퀸장 전용? 보트가 대기를 하고 있었다. 퍼붓던 비가 잦아들더니 배에오르고 출항길에 나선 앞길엔 탁트인 시야가 아주 상쾌하게 열려 있었다. 아침 파도를 힘차게 가르며 목적지로 향하는 배안엔 오늘을 벼르며 기다려온 결의에 찬 어부들로 가득하다.

목적지에 도착하고 선장이 주는 신호에 따라 낚시대를 드리운지 얼마나 되었다고 사방에서 함성을 넘어선 괴성이 들려온다. 오늘 알았다! 산에 선 심봤다를 외치지만 바다에선 으~아~악~~~! 이면 누군가의 낚시대에 큼직한 물고기가 걸려있다는 것을! 배를 움직여 장소를 움직일 때마다 오늘 어부가 되기를 자청한 퀸장 베드로들의 낚시대엔 날개달린 꽥꽥이 부터 광어 그리고 흙돔들이 풍성하게 달려져 올라왔다. 배 뒤켠에선 송 동율장로의 능숙한 칼이 올라온 광어들이 횟감으로 바꾸고 있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물고기를 낚으며 삼삼오오 모인 퀸장의 식구들은 사진도 찍고 서로 미끼도 끼어 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같은 시간 배 안쪽엔 교회에서 멀미약을 먹기전 밥을 먹는게 좋은지 아닌지를 확인하며 준비함도 무색하게 몇몇 어부들이 흔들리는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몸저 누었다. 그렇지만 곁에 앉아 손을 주물러 주고 등도 쓸어주는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점점 얼굴색이 좋아지며 회복 되어짐으로 퀸장 공동체의 따스함이 전해지고 있었다. 여러 섬김의 손길로 준비된 선상의 회



H박! 우럭입니다.



다어상 채영주 장로



대어상 이지선 집사



선상 맛집 - 회덮밥 전문

덮밥은 누웠던 멀미 환자들도 벌떡 일으키는 역사를 나타냈고 일년에 딱한번 맛볼 수 있는 선상 별미는 환상적으로 눈과 입을 만족케하여 모두의 엄지를 세우게 만들었다.

즐거운 시간들도 어김 없이 흘러가고 시상의 순서가 되었다. 대어상에 이지선 집사, 다어상에 채영주 장로가 준비된 트로피를 상으로, 부상으로 뉴욕시가 제공하는 평생 바다낚시 무료? 이용권을 받았다. 아쉬움을 뒤로한채 뱃머리는 뭍으로 돌려졌고 오늘의 즐거움은 부두에 도착하여 찍은 단체 사진으로 추억과 함께 간직하게 되었다. 미리 준비된 솥에 공수되온 물고기가 투하되고 매운탕 별미로 제공된 저녁 식사를 마지막으로 순수한 친목을 위한 모임의 시간은 내년을 기약하며 안전하게 마무리 되었다.



만선은 아니지만 베드로 부럽지 않은 퀸장의 어부들

26 — 아카페 9월/414호 아카페-27



I GIVE MY HEART TO THE LORD G2G 지휘자 이세현 집사

처음 아이들과 함께 시작했던 날이 생각이 납니다. 아이들과 새로운 곡으로 콘서트를 준비 하면서 첫날 여러 곡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 중 한곡은 한글로 된 찬양이라 아이들에게 가사를 설명해 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라는 가사를 아이들과 함께 읽어가면서 가사의 내용이 무슨 뜻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아이가 "I give my most important heart to the Lord"라고 대답해 주는데 가슴이 뭉클하여 기대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한글이 서투른 아이들과 한글이 낯선 중국아이들이 대부분이라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며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명쾌한 아이들의 대답과 함께 한걸음 더 나아가 아이들의 소중한 마음을 나눠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로 가득차 있어 저의 걱정이 사라지며 찬양이 준비된 아이들임을 알았습니다.

여름 뮤직 캠프를 마치며

2018년 음악 캠프는 올해로 3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합창21명의 학생과 오케스트라 47명등 총 69명의 학생들과 특별 강사를 포함한 12명의 선생님들로 8월 21일부터 8월 24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합창은 이세현 집사님, 채현주 권사님이 두 반으로 가르치시며, 이송은 집사님께서 전체 반주로 수고해주셨습니다. 한편 오케스트라는 박미언 집사님과 오재혁 선생님을 중심으로 바이올린, 첼로, 오보에, 클라리넷, 플룻 등의 기초반과 AINOS 1과 AINOS 2등 아이들의 실력과 학년에 맞는다양한 클래스가 운영되었습니다.

저희 찬양곡 중 '나는 예배자 입니다' 라는 곡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연습이 힘든 아이들과의 대화가운데 지금 우리의 연습조차도 예배이며 하나님이 기쁘게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줄 때마다 눈을 반짝이며 몰랐던 것이 아니라 잊었던 사실을 깨달은 표정으로 일어서서 크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려운 곡의 흐름과 많은 가사를 짧은 시간내 외워 부른다는 사실이 어른인 저로서도 힘든 일이지만 아이들은 가사 하나하나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 내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로 쓰임 받는다는 사실에 더욱 감사하는 예쁜 마음으로 연습이 아닌 매시간 찬양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콘서트 당일, 아이들은 각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로서 내 찬양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신다는 마음으로 자존감이 자라있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으로 지휘를 맡으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만 뮤직캠 프기간 매일마다 드리는 찬양으로 입술의 고백이 되며 우리 영의 즐거움인 찬양의 능력을 아이들이 몸으로 경험함을 보면서 오히려 힘을 얻으며 가르 쳤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육신은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음악 캠프의 목적은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음악의 기초와 바른 자세를 익히며 음악과 더 친숙해지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는 캠프 기간 4일 동안 새로운 곡들을 잘 익히고 배워서 캠프 마지막날 콘서트에서 완성된 곡을 연주하며 이를 통해 실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아이들을 조금씩 성장시키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

님의 은혜입니다.

올해에는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합창은 세 분의 선생님이 작년 캠프의 부족한 부분을 잘 보완하셨고, 오케스트라는 콘서트 하루 전에 외부 지휘자님을 초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는 기회를 가져서 더 효과적으로 콘서트를 준비하고 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뮤직캠프를 위해 함께 수고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The 3rd Summer Music camp

HAPPY AND JOYFUL TO SING FOR THE LORD



민유나 합창

In music camp it felt good. But being a leader was kind of hard. But I had fun singing and my favorite part was getting into groups and practicing together. In the music camp we learned more songs to sing for the Lord. Music camp is full of instruments and singing to worship the Lord. And in the concert it was sort of tiring but we did our best to sing to the Lord. I like music camp this year. I was happy and joyful to sing for the Lord.

WORSHIP GOD



DANIEL ANBINDER VIOLIN

My overall experience at the music camp was a mix of work and fun. At the beginning I didn't like the camp because it was very hard. I realized after the first day how fun it was. I also got better at the violin during the time at the camp. The best part was that I was worshiping God, while playing the violin. The part I liked the most was the concert when we could show all the hard work we did. I hope to come to music camp next year!

I PRAISE THE LORD WITH MY THREE BROTHERS



JOSHUA SHIN CLARINET

I and my 3 brothers all went to the Summer Music Camp. I played the Clarinet. Zach played the Viola, Eli played the Cello and Jojo played the Violin. The Summer Music Camp was a great blessing because I got to play the Clarinet and get better for God.

THE HOLY SPIRIT IN MY FLUTE



ANGELINA YOO FLUTE

My name is Angellina Yoo. In this year's music camp, I finally learned how to play the Flute. My Flute is a beautiful pink color unlike other Flutes. When I first started playing the Flute, I was very nervous. I kept on making a squeaky sound every time I was playing the notes: B, A, and G. After hours of hard work and prayer, I can finally play the Flute beautifully and smoothly. I thank God for giving me the determination to continue playing the Flute even when it was difficult. I also thank God for assigning me a wonderful teacher, who helped me greatly. This music camp went great! I can't wait to come back. I love you God!

VARIOUS WAYS TO PRAISE GOD



KATELYN CHOI CLARINET

My experience at the 2018 Summer Music Camp was enjoyable. This year I chose to play two instruments. As an original member of Ainos 2, I played violin in the orchestra in the afternoon but spent the morning hours learning bass clarinet. Playing both instruments were challenging but I managed to learn the pieces successfully. The concert was nerve wracking but thankfully I was able to make it through with the help of my teachers and fellow students. I have learned from this camp that there are various ways to praise God and that in every way we do it God accepts it if we do it wholeheartedly.

교육의 달 추천영화



I CAN ONLY IMAGINE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AND HE WILL MAKE YOUR PATHS STRAIGHT (PROVERBS 3:6)

AGAPE EDITOR

When's the moment your life became seemingly effortless that you had to let go of all your struggles and realize every path is a great plan of God's? Everyone has unique and beautiful story how God touched our life during hard time. The movie "I Can Only Imagine" is a 2018 American Christian drama film directed by the Erwin Brothers and starring J. Michael Finley as Bart Millard, the lead singer of MercyMe. Based on the story behind the MercyMe song, which Bart Milard wrote about his relationship with his father (Dennis Quaid), this song becomes the best-selling Christian single of all time. How did this happen? It is not Bart's work, but the One who we can truly rely on to, God.

In 1985, 10-year-old Bart Millard lives with his mother and abusive father Arthur in Greenville, Texas. One day his mother drops him off at a Christian camp where he meets Shannon and makes devotion as Christian. Upon his return from camp, Bart finds his mother has left and movers are removing her belongings. He angrily confronts his father, who denies that his abusiveness was the reason she left.

Years later, in high school, Bart and Shannon are dating. Bart plays football to please his father, but it injures him by breaking both ankles and ending his career. The only elective with openings is music class, so he reluctantly signs up. Initially, the di-



아버지의 폭력으로 늘 긴장 가운데 사는 엄마와 BART



음악은 BART의 고통을 토로하는 유일한 소통 수단



BART와 아버지의 마지막 대화 : 용서와 화해



BART가 처음으로 "I CAN ONLY IMAGINE"을 대중에게 공개

rector of the music class assigns Bart to be a sound technician, but after overhearing him singing, she casts him in the lead role in the school production of Oklahoma. Bart overcomes his reluctance and gives an impressive performance, but does not tell his father, who finds out the night of the show when he happens to see a flyer for the show in a diner. Arthur collapses in pain, and finds out he has cancer, which he hides from Bart. The following morning, Bart antagonizes his father, who smashes a plate over his head. At church, Shannon sees the blood and presses Bart to open up, but he responds by breaking up with her, and leaves town to seek his fortune in the city.

He joins a band in need of a singer, and convinces Christian music producer Scott Brickell to manage the band and secure a showcase in Nashville. Bart surprises Shannon and invites her to tour with the band, and is confused when she flatly refuses. In Nashville, Brickell introduces Bart to established artists Amy Grant and Michael W. Smith, but is unable to convince several record execs to sign the band, who do not believe the band, now performing as "MercyMe", is good enough. Devastated, Bart quits the band, but Brickell perceives that Bart needs to resolve issues in his personal life, so Bart reconciles with the band and asks them to wait for him, and leaves to return home.

Bart returns home late at night and is confused to find that his father has prepared breakfast for him the next morning. His father claims to have become a Christian, but Bart is skeptical and refuses to forgive him, and leaves. In anger and despair, Arthur smashes his old Jeep, which he had asked Bart to help him restore. Bart attempts to drive away in his father's pickup, but discovers the terminal cancer diagnosis, and returns to his father. He finally forgives his father, and the two form a deep bond, but Arthur soon dies of his illness.

After Arthur's funeral, Bart rejoins the band and writes "I Can Only Imagine", and also calls Shannon and apologizes for the first time since their breakup. Brickell sends the demo tape to several artists, including Grant, who, deeply moved by the song, asks to record it herself as her next single, and Bart, who just wants the song to be heard, accepts. Grant begins the song, but can't bring herself to sing it, and calls Bart on stage from the audience to sing it himself. Bart's performance earns an enthusiastic ovation, and he reunites with Shannon, who came to the concert. The band releases the song as their first single, achieving success on both Christian and mainstream

WHAT WE CAN'T DO, GOD CAN

BY EMILY SOHN

After watching the movie, "I Can Only Imagine", first thing that came into my mind was, how thankful to have such nice parents. It's hard to imagine what would it be like having everyday pain from those who should never give, are actually the source of pain. However, no matter how brutal the situation looks, I realized that God could make big changes, we never could have imagined.

One reason why I think that God could make big changes we can't even imagine, is because after Bart came back to his dad's home to face his fear, there was no horrifying monster dad to challenge anymore. His dad changed dramatically that he cooked breakfast, prayed before eating, and told Bart that he had been reading the Bible. This change was probably a fantasy to Bart because of how

his dad hurted him so much in the past. Another reason is that Bart decided to forgive his dad. If I were Bart, forgiving such a barbaric dad would be harder than trying to concentrate on a test for 6 hours with kids making a big ruckus. However, Bart managed to remember the sermon he received about forgiving and thought about how God forgives, every time he sins. Recalling the sermon, Bart went up to his dad and started his life anew, making their relationship better than before. The changes I see in the movie happened because Bart was brave enough to go with God's plan. Even though his dad was hard to forgive, Bart remembered God's forgiveness and love for us.

I think that we should follow God's plan, so that He could make big changes that mean a lot to us. God wants us to be one of His follower and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for this, love is the key to it. I realize that even if I go through hardship, I should hold onto the key to follow God and His good ways. * Source: Wikipidia

教育部的第一次野外活动 교육부 첫 야외모임

部长 JIANG, YI 부장



感谢神的恩典让全体教育部的老师们和但以理团契的青少年们 共30多名左右一同去野外郊游。 那是一个环境优美,设施全备的 BBQ的好地方,不但有沙滩排球场,还有篮球场,网球场,以及海滩,不但有好玩的,还有好吃的,传道们和弟兄姐妹精心预备的丰盛的饮食!在神所创造的大自然里,我们的身心灵都得到了充电。在 我们一同团契时所唱的诗歌,认识神真好!神为我们预备为祂作工 的传道人们,牧养我们属灵的生命,预备我们同样的成为小牧羊人, 成为青少年们,孩童们的生命的祝福,教导他们行当行的路。借着 团契的信息再次鼓励我们更加忠心的服侍这一代的孩子们。感恩!

교육부 선생님들과 다니엘모임 청소년들 총 30여명이 함께 첫 야외모임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우리는 환경도 아름답고, BBQ 하기도 아주 좋은 곳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출발했다. 그곳에는 해변도 있었다. 우리는 해변에서 배구도 치고, 농구장, 테니스도 칠 수 있는 장소도 있어서 재미있는 놀이와 게임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전도사님들과 형제, 자매들이 준비한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자연 속에서 우리는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 정말 좋습니다"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며,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을 뿐만아니라, 전도사님들의 공급으로 영적인 양식을 먹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우리들도 작은 목자로 준비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찬양을 드리는 청소년들

켜 청소년들과 아이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들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다. 모임의 나눔을 통해 다시 한번 아이들을 섬기는 일에 더욱더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심에 감사드린다!

教育部里的喜乐 유얼부에서 얻은 기쁨

青年 AMILY 청년



因为教育部的短缺,我决定去教育部帮帮忙。刚去教育部的第一天,孙传道就跟我说:看小孩子很辛苦,但是你会得到一个东西,那就是喜乐!当时虽然理解了这句话,但还是有点半信半疑,因为还没有体会过。 对于刚进教育部的我一切都是陌生的、新奇的。在小孩子们来之前,孙传道带着老师们会同心合意地祷告。求主能保守小孩子们平安喜乐,也能让传道老师们充满智慧来教导小孩子。小朋友们来了之后,江怡老师会带着他们一起敬拜。看着小孩子们又蹦又跳的,嘴角会自动上扬。敬拜过后,就是孙传到讲圣经故事的时间。传道讲得绘声绘色,小孩子们听的

也很认真。听完故事之后就是分班学习。给他们讲圣经故事,让他们画画,最后还会吃点心。

前两三周,我还不太习惯也没熟悉环境,我像木头一样的站在那里,不知道要干什么。慢慢适应以后,我开始观察老师们怎么做自己也开始学了起来。迎接小孩子,管理秩序,告诉他们什么能做什么不能做。我记得当时有个小男孩跟我同一时间进了教育部。他很顽皮,到处跑来跑去,完全不受控制,常常要妈妈陪着才不哭。所以我只负责带着他. 有一次,他妈妈把他送来就离开了。他开始嗷嗷大哭,怎么哄都哄不好。一直吵着叫着要去找妈妈。无奈之下我把他带出来找妈妈,他的母亲也因为担心在外面没走远。最后他母亲还是陪着他了。那时感受到带小孩子真心不容易。这需要智慧、耐心、爱心,而我还需要多多学习。 一个多月后,我开始慢慢得能帮上忙了。从搬椅子到哄小孩,我都开始一点点的熟练起来了。那个小男孩也慢慢的适应了教育部。不再需要妈妈陪着上课了。孙传道讲圣经故事的时候,也会乖乖坐着了。有一次,他还是跑来跑去得玩

要,我很认真的看着他的眼睛,告诉他:不可以跑来跑去,要回去坐好。他看了看我,马上回到座位上了。那时深深地感受到神与我们同在。短短一个月的时间,他进步得非常快。每天晚上孙传道和老师们都会为了教育部祷告。我觉得这是小男孩进步的最主要的原因。神听了我们的祷告在慢慢的改变他。跟刚开始来的时候,完全不一样。那时我也真正的体会到了传道跟我说的话:你会得到喜乐。

유얼부를 섬기던 첫날, 손요한 전도사님께서는 "어린이를 돌본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쁨을 얻을 수 있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머리로는 이해했으나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런 체험을 해본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얼부 예배는 낯설고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오기 전에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아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합니 다. 아이들이 예배드리며 기쁘게 춤추는 모습을 보면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갑 니다. 전도사님께서 성경말씀을 들려줄 때, 아이들이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 참 기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해야 할 일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 멍 现在想想我能去教育部服事真的要感谢主。本来是想去帮忙的,但是我得到了更多东西。跟着那个小男孩一起适应环境一起成长。教育孩子是很重要的事奉,也是很辛苦的。但是看着神一点点的改变小朋友,让小朋友们一点点的进步。那种是说不出的喜乐。就像那个小男孩悄悄站在我旁边拉起我的手,心里无限温暖起来。一切都是神的恩典。

하니 서있었지만, 다른 선생님들을 보면서 어린이 맞이하기, 질서 유지하기, 옳고 그름을 가르치기 등을 배우며 지혜, 인내심,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달이 지나서야 조금씩 적응하는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사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전도사님께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얼부에서 봉사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되고 싶었지만, 제가 더 많은것을 얻었습니다. 어린이를 가르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며 또한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조금씩 성장시키는 모습 을 보면 정말 기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중국 교포부 연합구역예배 기도와 수고, 사랑으로 이룬 부흥

이애령 집사



저는 2교구 16지역 지도원인 이애령 집사입니다. 우선 저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중국교포부 작년에는 4 지역이였지만, 금년에 6지역으로 부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늘 수고하시는 지도원, 지역장, 구역장,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헌신을 잊지 않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1년에 한번 드리는 연합 구역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몸이 하나됨을 느꼈습니다. 손요한 전도사님을 통하여 은혜로운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여러 집사님들, 성도님들의 수고의 손길을 통해 맛나는 육의 양식도 공급받은 귀하고 복된 시간에 감사합니다. 주일에는 서로 다른 예배를 드리기에 얼굴을 자주 보지 못한 분들도 같이 모여 식사하고 교제함으로 마음이 더 가까워져서 즐거웠고 감사했습니다. 또한 힘들고 지친 마음들을 위로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간증하는 시간도 갖었습니다. 가장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배와 교제의 중요성을 더욱더 깨달아가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삶속에 실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40여명의 구역식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지만, 내년에는 더 부흥하여 더 많은 중국교포분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될 것을 믿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손요한 전도사님의 말씀으로 연합구역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마지막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교회와 늘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주시는 담임목사님과 온 몸을 희생하면서 오직 중국교포를 위해 헌신하시는 황해옥 전도사님, 중국교포를 위하여 기도와 후원을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희생과 수고, 기도가 있었기에 중국 교포가 부흥된 줄을 믿으며 앞으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가페 414호 가로 세로 낱말 맞추기

1	Tite		2		3	4
			5		Н	
6	7				8	
	.9		'n	10		
			11	'n	12	13
14		15			Н	
16			17			

가로 푸는 열쇠

- 1 이달 우리 교회 표어
- 3 히스기야의 어머니 (왕하18:2)
- 5 임금을 모시고 있던 시종원의 한 벼슬 (창45:1)
- 6 목동에서 왕이 된 사람 (삼상17:34-35)
- 9 정치적 목적 따위로 사람을 몰래 찔러 죽이는 사람 (행21:38)
- 10 구약 여덟번째 책
- 12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함 (행24:14)
- 15 레위의 증손이요, 모세의 종형으로, 성질이 오만하고 명예심이 많음 (민16:1)
- 16 구리에 슬은 푸른 녹 (마6:19)
- 17 일이 뜻대로 잘 될때 기꺼워하거나, 또는 성낼 때에 그 기운이 펄펄 나는 일 (고사성어)

세로 푸는 열쇠

- 1 모시어 받들다 (창14:4)
- 2 노아의 아들 야벳의 손자 (창10:4)
- 4 야르믓왕 (수10:3)
- 7 웃 사람이 앉는 자리. 상좌 (국어)
- 8 아시아인으로 진실한 집사요 바울의 친구이다 (행20:4)
- 11 구약의 마지막 책
- 13 백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 군대의 지휘관 (마8:5)
- 14 깊이 느끼어 마음이 움직임 (창41:38)

아가페 413호 문제정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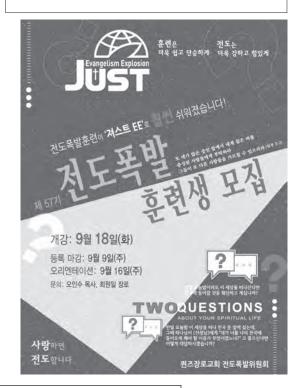
사	랑	의	² 달		³ 백	⁴ 발
무			⁵ 구	약		람
⁶ 엘	7 리		지		⁸ 간	
	9 世	나		10 유	다	
	라		¹¹ 진		¹² 게	¹³ 산
¹⁴ CH		15 구	주			산
¹⁶ 면	제		¹⁷ 만	신	창	10

1. 참여방법 낱말을 다 맞춘 후 정답지를 친교실에 비치된 응모함에 넣어 주세요.

2. 응모기간 9월 16일 주일 - 26일 수요일

3. 당첨자 발표 정답지 중 다섯 분을 추첨하여 아가페 2018년 10월호에 발표합니다.

퀸즈장로교회 친교실 식권 10장씩 4. 상품안내



김은순권사(3교구2지역) 정진양집사 김상은집사 조규옥집사 오운실권사

Grace to all who love our Lord Jesus Christ with an undying love. 并愿所有诚心爱我们主耶稣基督的人, 都蒙恩惠。 2018년 7월 새가족 안내 Korean Ministry

























Chinese Ministry



黄秀琴 拿俄米-3-2

拿俄米-3-1





任小莲

彭根明







蔡桂华 腓立比-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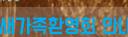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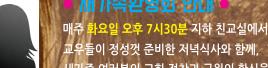












족 여러분의 교회 정착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ig Love 부제: 다 이루었다 조**샤론** 청년대학부 June 2017